

# 테크노세미켄, 영업실적 크게 개선

현대증권, 하반기 LCD 재료·부품에 식각액·BLU·CCFL 가격상승

현대증권은 8월10일 테크노세미켄 등 일부 LCD 장비기업들이 하반기 <Earning Surprise> 수준의 영업실적을 낼 것이라며 관련업종에 대한 매수를 권고했다.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하반기에 LCD 패널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비가격 인하압력이 크게 완화되고, LCD 관련주의 수익성이 2004년 하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LCD 재료 및 부품으로 LCD용 식각액, 백라이트유닛(BLU), 냉음극형광램프(CCFL) 등을 들었다.

또 “식각재료는 테크노세미켄이 동우화인켄과 국내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출하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테크노세미켄은 우수한 원가구조와 재무구조로 하반기에 강력한 수익 모멘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LU 메이커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며 삼성전자 탕정라인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디에스엘시디와 한솔LCD의 수혜를 점쳤다.

한편, LCD TV 수요증가에 따라 핵심부품인 CCFL 메이커의 출하 및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ETI, 금호전기의 공장가동률이 90-95%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실정이며, 당분간 CCFL 공급도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화학저널 2005/08/12>